



이슈 점검

# 스마트폰

## 코로나가 바꾸는 스마트폰 시장



코로나19는 다른 IT Set에 비해 스마트폰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스마트폰의 경기 민감도가 더욱 큰 만큼, 수요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고, 프리미엄폰 수요가 중저가폰으로 이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5G 효과도 보급형에 집중되고 있다. 2월 스마트폰 시장은 14% 역성장했는데, 코로나 19의 글로벌 확산과 주요국 봉쇄 조치로 인해 3월과 2분기 판매 성과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전기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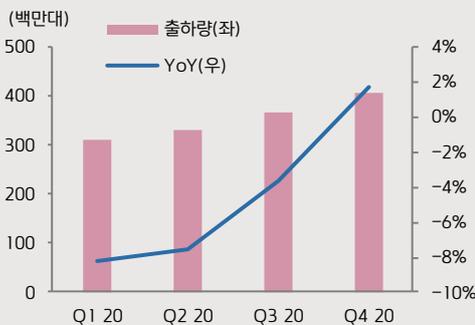
Analyst 김지산

02) 3787-4862 jis@kiwoom.com

RA 오현진

02) 3787-3750 ohj2956@kiwoom.com

### 분기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



### 분기별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3월 27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코로나 국면에서 다른 Set보다 스마트폰 부정적 영향 커

코로나19 국면에서 1) 스마트폰이 다른 IT Set에 비해 경기 민감도가 더욱 큰 만큼, 수요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고, 2) 프리미엄폰 수요가 중저가폰으로 이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3) 중국 업체들의 5G폰 신모델은 주로 중간 가격대(300~599달러)에 집중되고 있다.

### >>> 2월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14%(YoY) 감소

시장 조사 기관 Counterpoint에 따르면, 2월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4% 감소한 9,300만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컸던 중국과 이탈리아에서 판매가 급감했다.

미국은 2월 스마트폰 판매량이 16%(YoY) 감소한 980만대였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0의 출시를 앞두고 전작들의 재고조정을 위해 강한 프로모션을 단행했는데, 갤럭시 S20의 사전 판매가 부진했고, 갤럭시 A시리즈가 선전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영향은 3월 판매 성과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텐데, Apple의 모든 판매 매장과 통신사들의 대부분의 매장이 폐쇄된 상태다. 중국은 2월 스마트폰 판매량이 34%(YoY) 급감했고,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1월 대비로도 42%(MoM) 감소한 1,760만대에 그쳤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급과 수요 모두 부진했지만, 3월부터는 판매량 회복이 예상된다.

브랜드별로는 Huawei가 가장 타격이 커 28%(YoY) 급감했고, Apple과 삼성전자는 각각 7%, 3%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인도와 베트남 등 중국 외 생산 기반에 근거해 경쟁사 대비 피해가 작았다.

### >>> 3월 판매 데이터 훨씬 심각할 것

3월 글로벌 판매 데이터가 훨씬 심각할 것이다. 주요국들의 봉쇄 및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오프라인 판매가 급감할 것이고, 온라인 판매로 얼마나 상쇄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세계 2위 시장인 인도의 봉쇄령도 시장 수요와 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Counterpoint는 올해 스마트폰 시장이 4% 역성장할 것으로 추가 하향 조정했다. 1분기 -9%에서 2분기는 -11%로 역성장폭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2분기는 중국이 -7%로 호전되는 반면, 북미와 서유럽은 각각 -20%, -20%로 악화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마저 하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국 외 지역으로  
코로나19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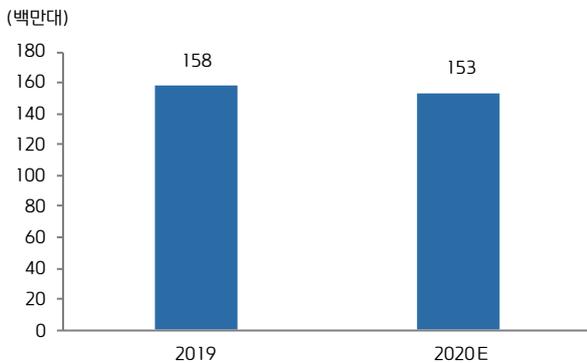
세계 2위 스마트폰 시장인 인도가 3주간의 범국가적 Lockdown(봉쇄)에 들어가면서 스마트폰 시장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Counterpoint에 따르면 이번 봉쇄로 3월 한달간 약 1,000만대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감소할 것이다. 봉쇄 영향은 4월까지 커질 것이며 인도의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치도 기존 1억 7,200만대에서 1억 5,300만대(-3%, YoY)로 하향됐다.

인도의 스마트폰 공장들도 4월 14일까지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공급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다. 삼성전자는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인 노이다 스마트폰 공장이 문을 닫았다. Apple 아이폰 생산을 담당하는 Foxconn과 Wistron의 인도 공장도 가동을 중단했다.

중국의 Xiaomi와 Vivo는 예정돼 있던 신제품 출시와 판매를 미룬다고 발표했다.

인도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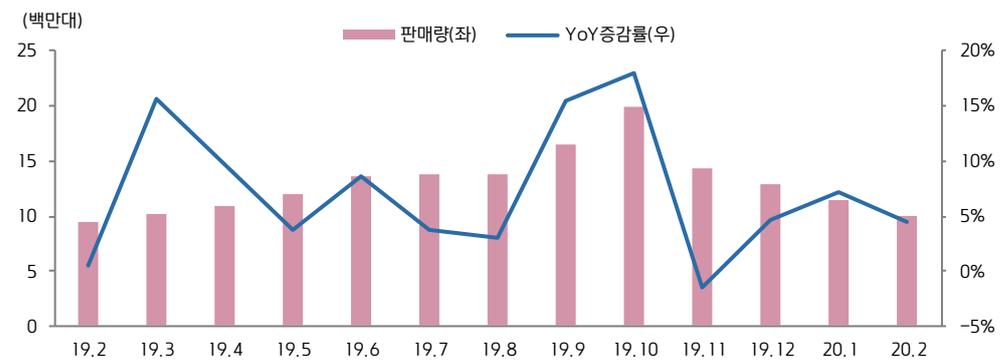
자료: Counterpoint, 키움증권

인도 Lockdown 관련 스마트폰 업체들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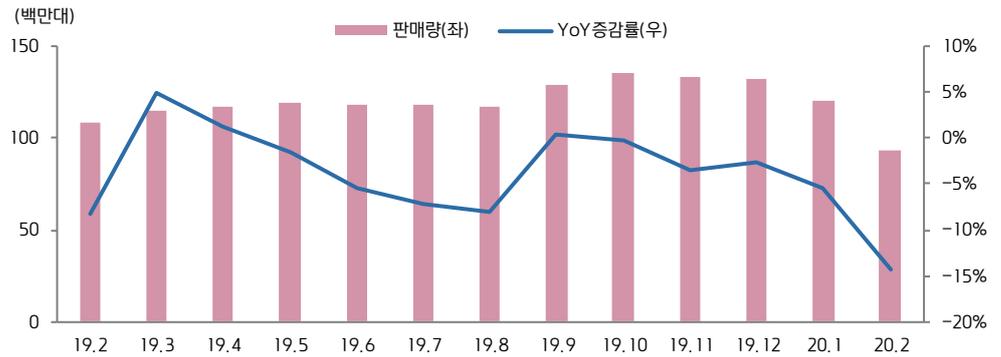
자료: Xiaomi, 키움증권

인도 월별 스마트폰 판매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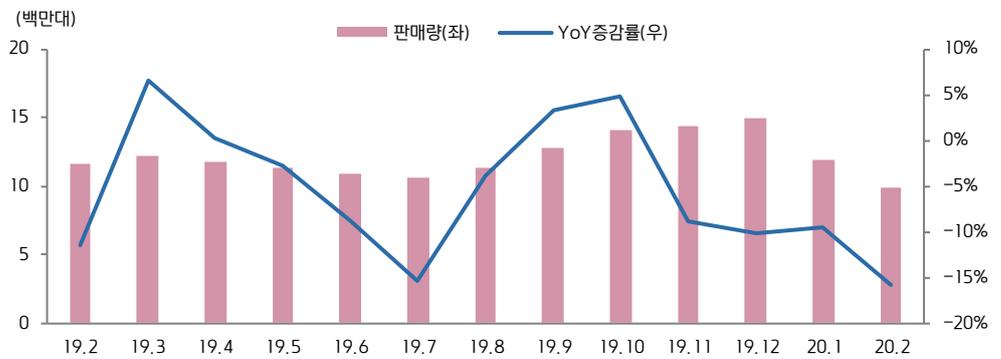
자료: Counterpoint, 키움증권

### 글로벌 월별 스마트폰 판매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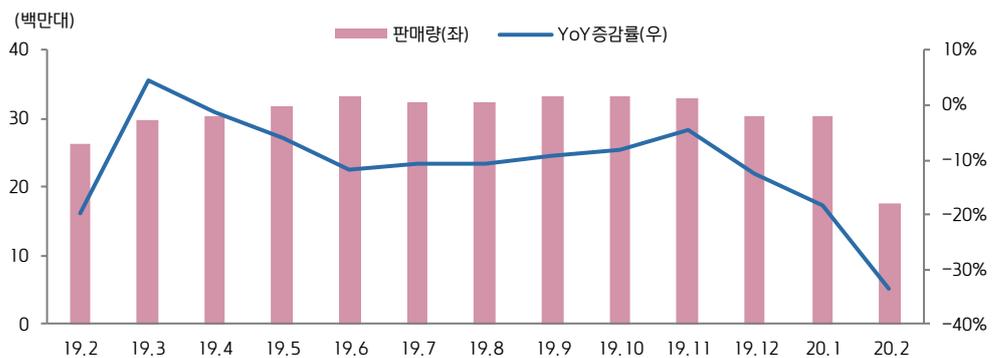
자료: Counterpoint, 키움증권

### 미국 월별 스마트폰 판매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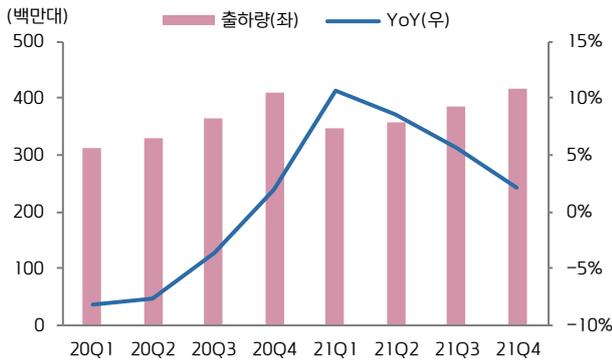
자료: Counterpoint, 키움증권

### 중국 월별 스마트폰 판매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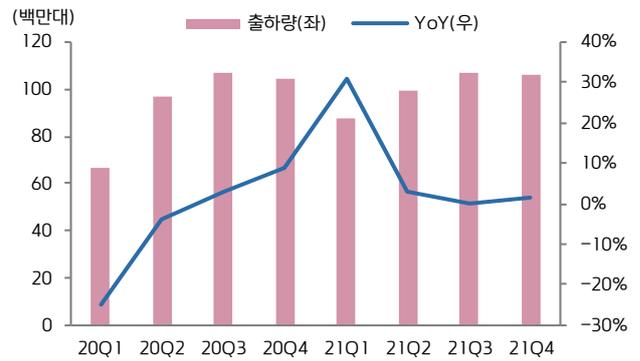
자료: Counterpoint, 키움증권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



자료: Counterpoint, 키움증권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



자료: Counterpoint, 키움증권

투자의견 및 적용기준

기업	적용기준(6개월)
Buy(매수)	시장대비 +20% 이상 주가 상승 예상
Outperform(시장수익률 상회)	시장대비 +10~+20% 주가 상승 예상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시장대비 +10~-10% 주가 변동 예상
Underperform(시장수익률 하회)	시장대비 -10~-20% 주가 하락 예상
Sell(매도)	시장대비 -20% 이하 주가 하락 예상

업종	적용기준(6개월)
Overweight (비중확대)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수익 예상
Neutral (중립)	시장대비 +10~-10% 변동 예상
Underweight (비중축소)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하락 예상

투자등급 비율 통계 (2019/01/01~2019/12/31)

매수	중립	매도
97.33%	2.00%	0.67%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